

지역 소식통

고창군,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원 모집

고창군보건소가 질병관리청, 원광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한 조사원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고창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과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건강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모집인원은 총 6명으로, 조사원은 오는 8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관내에서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를 이용한 1:1 면접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모집요건은 20세 이상의 성인 중 컴퓨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재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자로 이중 취업자는 자격에서 제외되며,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한방 가정 방문사업 실시

부안군은 한의약적 건강돌봄 활성화와 만성질환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일 한방 가정 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방 가정방문사업은 진료서비스 수혜가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관절염환자, 만성질환 위험군 어르신 등 한방 가정방문 진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와 사업 담당자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한의약 시술, 한약처치, 한의사 1:1 건강상담 등 포괄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상자들에게 한방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며 침 시술, 부약 등 진료는 물론 파스 등 통증완화 의료용품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강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의 만성·노인성 질환 예방 관리와 노인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한방 진료, 우울·불면 등 정신건강 상태 검사 등 다각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긴급 한해대책 회의 개최

유기상 고창군수, 군정 복귀 첫 일정



유기상 고창군수가 2일 오전 10시 30분 첫 공식일정으로 긴급한 가뭄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가졌다. 유기상 군수는 선거 기간 중 가뭄으로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군정업무에 복귀하는 첫날부터 민생 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농어촌위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 추진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부안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센터장 하남선)는 지역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알리고 실질적인 관계인구 확대를 도모하고자 서울 50+ 재단과 협력, 서울시 50+ 세대를 대상으로 '농어촌 위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 위킹홀리데이 in 전북은 지역살이를 희망하는 서울시 50+ 세대를 전문경험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북 소재 기업(기관)에 배치하여 컨설팅, 관료개척 등 지역체류를 통해 활동 수행과 지역을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50+ 재단이 상생협력하는 모델로서 무주, 임실군과 함께 3개 시군이 추진하며, 서울시에서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부안군의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게 되었다.

농어촌 위킹홀리데이 in 전북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50+세대 참여자 6명은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부안의 4개 기업(기관)에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홍보 및 마케팅, 농촌체험상품, 교육상품 개발 및 디자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현장인턴십을 진행하고, 지역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를 대상으로 양수 저류, 하천수를 활용한 직접 급수 등 농업용수 확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했다.

현재까지 고창군은 가뭄 대비를 위해 중형관정 21공, 대형관정 2공, 소규모 뚝방 지원사업 15개소 등 용수원을 개발하고, 성송 압지제의 농업용수를 대신찬에 방류해 농업용수 확보에 힘쓰고 있다.

다만 고창군의 식수공급은 그동안 확보한 비상 취수원 등 덕분에 당분간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고창군은 이달부터 가뭄대비 상황실을 운영해 가뭄피해 예상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내 저수지 등 수리시설 저수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뭄피해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피해 상황과 사전 대비책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철저한 가뭄대책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정읍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의 지원조건을 확대·변경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경영비용 부담에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흥업·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 일부 업종

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올해는 지역 내 3,000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6월 7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업장소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확대·변경 내용을 현수막과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또한 신태인·연지·샘고을 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도 협조 요청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3,000여 개 소상공인 업체에 6억8천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눌렸던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금 시작되면서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을 분위기다.

매주 금요일 '상설 공연' 시작

정읍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고고장구·색소폰 등 25개 동호회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역눌렸던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금 시작되면서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을 분위기다.

정읍시는 6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사)정읍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변형만) 상설 버스킹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연에는 고고장구와 색소폰 하모니카 등의 동호회 25개 팀이 참여하며, 저녁 7시 연지아트홀 야외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상설 공연은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바쁜 일상으로 지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예술 동호인들에게는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에서는 음악, 무용, 국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며, 다양한 공연 팀이 각기 색다른 콘셉트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난타와 색소폰 퐁키타, 고고장구 등 수준 높은 연주와 함께 신나는 댄스와 노래로 공연장을 찾는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계획이다.

금요 상설 공연의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063-538-5175)로 문의하면 된다.

공연 관계자는 "지역 내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작지만 알찬 공연을 준비했다"며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이 시민들의 지친 일상에 활력을 주는 행복 에너지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5월 설립된 (사)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국악, 음악, 무용, 문학 등의 시민공통체로 11개 분과, 90개 동호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샘고을시장, 7일 외골와글시장가요제 열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외골와글 시장가요제(이하 시장가요제)'가 7일 오후 2시 정읍 샘고을시장 내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시장가요제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이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TV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전략으로 마련됐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리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불거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정읍시가 후원하고 샘고을시장 상인연합회가 주최, JTV 전주방송이 주관한다.

가요제는 개그맨 황기순의 진행으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참가자들의 노래 자리가 펼쳐진다.

또 축하 공연으로 인기 가수 강진과 우연이를 비롯해 나상도, 전가연 등이 출연해 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재미와 추억의 장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 내 주요 점포와 상품 숭은 맛집 등을 소개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전자레인지와 자전거, 온누리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장가요제뿐만 아니라 장보기 등 전통시장에서의 다양한 행사 진행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참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